

**동우컬럼**

언행일치

목사 가족이 그날 목사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는 그야말로 최고의 설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가족이 보는 목사의 모습은 단에서의 모습과 너무 달라 웬만해서는 가족들이 은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단에서의 말과 단 아래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뭔가 껄끄럽다.

믿는 자는, 특히 주의 종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해외집회에 나가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면 목회자들에게 먼저 헌금을 하라고 한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복이 온다고 해놓고 정작 주의 종들은 입을 싹 씻는다. 목사가 단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설교해놓고, 연말에 구세군 냄비를 피해 살짝 돌아간다. 그래서야~~~.

나는 늘 이태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사우나를 다닌다. 어느 날, 사우나를 마치고 그 근처 도로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을 3마리 샀다. 가족들과 먹기 위해서다. 통닭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길 건너에 있는 한 노숙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고, 행색이 변변치 못한 채로 동냥을 구하는 듯했다. 나는 통닭을 파는 사람에게 한 마리를 더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길을 건너가 통닭을 그에게 건넸다. “이것 드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통닭구이 사장은 그런 나를 유심히 보는 듯 했다. 그는 내가 목사인 줄 안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 중 하나가 잘 나가는 자기 친구 자랑을 하면서,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에게 “자네도 그렇게 하게.”라고 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된 삶을 사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최후의 말씀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셨음을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도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



2023 월드컵예선 인 서울(4월 1일, KBS아레나홀)

대구, 인천, 그리고 서울! 이제 월드프레이즈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오대양 육대주, 바로 세게다.

“나는 이월드 목사를 국내 후계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찬양을 들고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4월 1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있었던 월드프레이즈 서울 찬양집회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다.

KBS 아레나홀은 그야말로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는 만석이였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하는 법, 하나님은 꿈을 통해 목사님께 미리 계시하셨다. 시기와 분쟁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고 가르치신 목사님이 어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시겠는가. 목사님은 이월드 목사에게 혈기 내지 말고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되라고 당부에 또 당부하셨고, 이에 이월드 목사가 순종하고 금식기도까지 했기에 모두가 연합하여 무결점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에 마땅한 시간이었다.

찬양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집회를 준비하던 중 악기를 담당하는 분, 자막을 담

당하는 일꾼들의 가족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두 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연습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임했더니, 집회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허리를 못 쓰던 분이 뜨겁게 찬양을 하다 지팡이를 놓고 뛰는 역사도 일어나고, 첫사랑을 잃었던 일꾼들도 찬양을 하며 다시 예배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난다는 고백이 나오는 등,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미 찬양의 위력에 대해 말씀하셨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일선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며 행진하게 하였다. 그러자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셨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다는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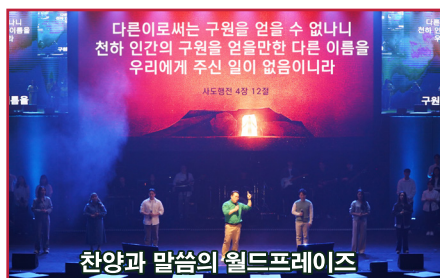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며 찬양하다 바지가 흘러내렸다. 그런 그를 보고 아내 미갈이 비웃었지만, 다윗은 개의 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하셨다.

목사님은 천 명의 성가대를 만들자고 선포하셨다. 찬양의 능력을 아시기에 그러신 것이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사43:21).

샘물이 솟아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계속 흐르면 강이 되며, 강은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 월드프레이즈가 꾸준히 향진할 때 하나님은 너른 바다, 세계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찬양으로 많은 심령을 변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서울과 인천 교육부의 적극적인 전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윤보혜 생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8:17~26)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목회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교회가 깨졌습니다. 제가 직분을 준 일꾼들이 등을 돌렸고, 성도들을 총동원하여 저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100% 제 물질을 들여 꾸민 교회인데 저더러 나가라니요. 참 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니 일꾼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마9:38)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일꾼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검증하고 뽑아야 했는데, 아무에게나 직분과 일거리도 줬더니 그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제야 저는 성경을 봤고, 성경에서 ‘사람은 골라 쓰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다

여러분, 사람은, 특히 일꾼은 골라 써야 합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씨앗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물에 담가 둥둥 뜨는 것은 아끼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는 말씀은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골라 써야 합니다. 사람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세상입니다. 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천만을 먹여 살리는 인재중심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인재를 써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합니다.

삼고초려(三顧草廬)를 아시죠? 후한 말엽,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漢) 왕실의 재건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전군을 통솔할 군사가 없어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은사인 사마휘에게 군사를 천거해달라고 했더니 사마휘는 제갈량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에 유비는 즉시 수레에 예물을 싣고 양양에 있는 제갈량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세 번째 방문에서야 그와 조우했습니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자는 곧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꾸준히

히 연구하고, 꾸준히 노력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골리앗 상대로 어린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대개는 다윗은 어리고, 군사훈련 경험도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능력자, 곧 준비된 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삼상17:34~35). 다윗은 사자와 곰을 상대로 양을 지키는 능력자, 준비된 자였기에 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맷돌 단 한 개로 단번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다섯 달란트를 받아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와 두 달란트를 받아 두 달란트를 남긴 능력자를 주인이 칭찬하고 지원해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국가든 기업이든 이익창출하는 자를 써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도 영적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익, 교회가 부흥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돌볼 양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쓰는 일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4:20).

둘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이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였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다(요21:15~17).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해를 낳지 않고, 사랑은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을 지니고 있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13:4~7).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오거든요.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

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롬8:35).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저는 곧 다시 세계선교를 위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제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저를 사랑하는 이시대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면 저에게도 저 대신 죽어줄 장로와 권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인물이나 배경이나 능력, 혹은 돈이나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월 가면 늙게 되고, 살다 보면 험한 일도 겪고,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 보고 결혼했다가 배경 날아가면요? 돈 보고 결혼했는데 부도나면요? 그래서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의 첫째 조건은 ‘나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셋째, 코드가 맞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생각과 뜻이 같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말

입니다. 이번 월드프레이즈 찬양집회 당일, 저는 최종 리허설로 분주한 찬양단원을 모으고는, 그중 네 명에게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그러자 각자 다 다른 답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없다,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뜻이 안 맞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3:13~15). 예수님도 당신과 마음이 합한 자, 곧 코드가 맞는 자를 택하여 일하셨고,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들이 땅에 보내셨습니다(행13:22~23).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하십시오.

여러분,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나를 봐야 합니다. 똑배기보다 장맛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말했듯이 재덕을 겸전했는지, 진실 무망한지를 봐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미련 없이 버렸듯이 잘라내십시오. 고름이 살이 안 되니까요. 어느 재벌이 부도 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말을 바꿔 타십시오.”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 말을 듣고는 자기 눈 같은 사람을 빼내고 전문가를 썼더니 기업이 회생했습니다(마5:29~30).

똑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4월 12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꽤 오래 뜸을 들였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람을 고르느라 그런 겁니다. 자고로 물건이 좋을수록 포장지 좋아야 하는데, 임직자들이 예수중심교회의 포장지이기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골라 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느브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골라 써서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검하십시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이니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상어의 무덤, 성도의 무덤

뜨거운 물과 찬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빨리 얼까요? 당연히 찬물이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BC 300여 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조건에서는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음펨바 효과(Mpemba Effect)입니다. 음펨바 효과는 같은 냉각 조건에서 높은 온도의 물이 낮은 온도의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25℃ 미지근한 물과 90℃의 뜨거운 물로 비교 실험하였을 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온도가 더 높은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얼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냉랭한 심령보다, 오히려 어설픔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도 세상 유혹과 염려에 현혹되어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심지어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지근한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듯, 미지근한 심령 가운데 악한 영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계3:15) 경고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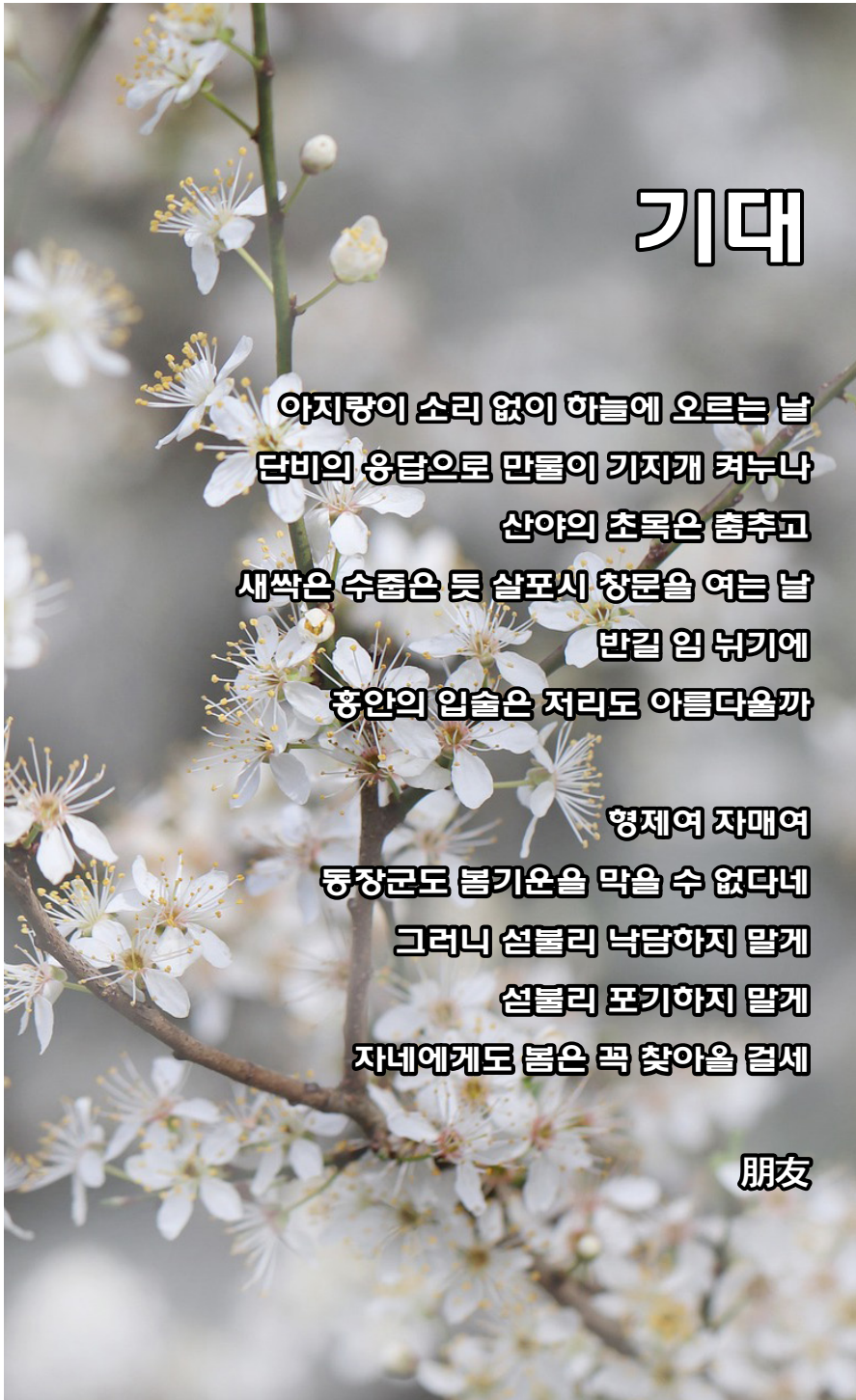
는 것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 그런데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잠시도 해엄을 멈출 수 없다고 해요. 해엄을 계속해야만 산소가 폐로 흘러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어는 죽기 전까지 해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상어는 해엄을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가 상어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방전되면 그 어떤 기기도 무용지물이 되듯,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막9:29).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강조하셨지요(마26:41). 바울 또한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살전5:17). 총회장님께서는 늘 ‘기도가 멈춘 자에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강조하십니다. 그 어느 교단과 교회보다 강력한 기도 운동을 전개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춘 그 자리가 성도의 무덤입니다! 닳은 쥘은 시간과 정비례한다죠? 예수와 오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면 최우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희망의 문을 여는 법

세상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 더 풍요롭긴 해도 아직도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그리고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물가 상승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미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창녀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함으로 말이다. 첫아들을 낳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의 이름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당연한 이름이지만, 당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르 바알’ 즉, ‘바알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르 바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자기에게 돈이 되고 어떤 이익이 있으면 온갖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이나 어떤 이익이 없으면 안면무수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호세아는 둘째 딸 이름을 ‘금홀이 없음’

이란 뜻의 ‘로투하마’라고 불렀다. 금홀은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헬’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을 가리킨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외친다. 호세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로암미’라고 이름 짓는다.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내 백성이 아님’을 선포한 것은 그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택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보다 바알 신을 남편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과 동업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때를 통해 수없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철저한 ‘바알 제거’에 있다. ‘물질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적인 희망이 있다(히12:2). 이정금 전도사



기대

아지랑이 소리 없이 하늘에 오르는 날
단비의 응답으로 만물이 기지개 켜누나
산야의 초목은 춤추고
새싹은 수줍은 듯 살포시 창문을 여는 날
반길 임 뉘기에
홍안의 입술은 저리도 아름다울까

형제여 자매여
동장군도 봄기운을 막을 수 없다네
그러니 선블리 낙담하지 말게
선블리 포기하지 말게
자네에게도 봄은 꼭 찾아올 걸세

朋友

:: 오늘의 메시지 ::

꿈꾸는 자

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가리אות 있을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갓 잡아 올린 생선과 같다. 끊임없이 요동친다.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에 사로잡혀 도무지 평강을 이루지 못한다. 바람이 자야 연꽃이 맑아지고 그 위에 구름이 비치고 달도 뜬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된다. 우리 마음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니 우리 의식이 고요해질 때 꿈속에서 말씀하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도함으로써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하면 그윽한 하나님의 음성, 계시, 환상, 예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일방적이어서는 반쪽짜리 기도이다. 내가 부르짖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으로 받아들여야 온전한 기도이다. 하나님은 야콥의 꿈에 나타나셔서 큰 복을 주셨다. 요셉도 꿈꾸는 자요 해몽하는 자였으며 다니엘도 그러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민12:6). 하나님은 나귀에게도 말하게 하신다. 짐승도 들어 쓰시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다윗이 자식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저주하던 사울 왕의 친척을 부하 장수들이 죽이려 하자, “되되라, 저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일지도 모른다.” 하며 겸손히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천 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며 엄청난 기도와 경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다. 솔로몬 역시 왕으로서 번다한 일에 매여 있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 꿈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꿈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주께서 우리들의 꿈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만 백성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욥2:28). 이광주 목사

꿈이 향하는 곳

얼마 전, 둘째 아이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인 강당에 아이들이 한 명씩 입장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자가 그 아이의 꿈을 말해주었고, 학부모들은 박수로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자 모두가 예상할 만한 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똑똑한 의사, 멋진 무대를 꾸미는 아이돌,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 유튜버 등, 지금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꿈들이었죠. 그러다 한 아이가 등장했는데 저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이 반사적으로 큰 환호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밤새 사람들을 태워주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요’였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왜 학부모들이 그 아이의 꿈에 환호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꿈이 자신만 돋보이는 삶

을 넘어 사람들을 함께 품어 나르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결론이었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정말로 버스 운전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이웃을 밝히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권력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권력, 성공 자체를 욕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민족을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 자리에 앉았던 요셉도, 본인의 성공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요. 다윗도 권력의 정점인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민족을 위한 전투 출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시정잡배들을 장군으로 길러낼 만큼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을 넘어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꿈과 갈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과 빛이 되는 삶을 소망하며, 그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하인명 집사

왜 귀신을 변호하느냐?

포항시민회관, 경주시민회관, 울산상공회의소, 포항예루살렘교회에서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다.

포항시민회관을 대관하여 집회를 할 때였다. 네 사람의 목사들이 종이와 불펜을 각자 들고 우리 교회에 왔었다. 그들은 1주일 전 구원파로 알려진 박옥수 목사의 포항공설운동장 집회를 못하게 했으며 우리 집회도 못하게 할 심산으로 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의자에 앉으라 하고 일회용 커피 한 잔씩을 대접하며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며 귀신은 불신자가 죽은 자라고 성경 구절을 대며 설명했다. 천사는 타락할 수는 있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존재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고 말했다. “불신자의 사후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왜 귀신을 변호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귀신을 보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백주 대낮에 귀신을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내게 하신 말씀도 똑똑히 들었다.”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이라며 성경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우리는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지만 당신들의 교인을 빼오려고 집회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시라. 윗주머니에 돈을 아랫주머니에 넣었다고 돈이 불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네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교인이 당신네 교회 간다고 부흥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부흥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잠히 듣고 있던 그들이 “아!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잘못된 것 하나도 없네.”하고 물러갔다.

포항시민회관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박 4일 진행되었다.

이승효 목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이제야 깨닫는 부모님의 기도원 생활

목사님께서 2004년 시카고 목회자 세미나를 보여주셨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이 목사는 일꾼을 잘 골라 써야 한다고 하셨다. 일꾼과 마음이 합해야 하고, 신앙이 같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써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셨다. 그리고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라고 하셨다.

2004년 당시 목사님은 1년의 반을 해외로 나가셨다. 그럼에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은 ‘실력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시대 목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문득 세미나 영상을 보고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난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성 기도원에 있었다. 신학교 오기 전까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대체 왜 이런 산골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 거지?’ 하면서 때로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원망도 했었다.

남들은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여유롭게 살지만, 기도원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끼리 1박 2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는 작년 4월 26일 기도원 봄집회를 준비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셨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해오신 말씀이 있었다. “명철아, 나는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기도원 당장에 나가.”, “명철아, 아빠 꿈은 하나님 일 하다가 천

국 가는 게 꿈이야.” 항상 나에게 해오시던 말씀이었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간다.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봉사를 해오신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셨고, 목사님과 마음이 합했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믿고 기도원 직원으로 써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아버지는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셨다.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 온통 목사님 사진이 걸려있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다. 나는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시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다. “나는 내 가족보다 내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와닿았었다.

“목사님, 집회 2주 더 연장하세요. 제가 아름답게 꾸밀게요.” 아버지가 작년 4월에 집회를 준비하며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의 2층 식당을 숙소로 바꾸고 야외식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 기뻐하시고, 믿고 일을 맡기셨다.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항상 선두에서 사력을 다해 일하셨다.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은 작년 4월 26일 늦은 새벽 1시까지 야외식당 설계 도면을 짜고 계셨던 모습이다.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내가 믿고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말

려라.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줘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목사님께서, “나는 오치환 장로를 믿어”, “오치환 장로만 오면 다 돼!”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러니 아버지는 67세라는 적지 않은 연세에도 믿어주는 주님과 목사님이 계시니 죽도록 충성하신 것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몸 성한 곳이 없지만,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계신다.

나는 성공하기 쉽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한 대로만 충성하면 실패하려야 실패할 수가 없다. 또 목사님께 배운 대로만 실천한다면 실패하려야 실패할 수가 없다. 하지만 쉬운 게 어려운 거라고, 배우고 들은 걸 실천하는 게 어렵다. 목사님께서는 지금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오시며 지금의 목사님이 되셨다. 나도 항상 배우고 듣고 깨닫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기필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충성되고, 이초석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 다짐한다.

오늘도 세미나 영상을 보면서,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위대한 목사님 아래에서 배우고 익히며, 이런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자고 났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항상 너무나 감격스럽다.

Glory Hallelujah-!

오명철 생도
dhaudcjf12@naver.com

